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인 쇄 : 2001년 8월 1일

발 행 : 2001년 8월 1일

지 은 이 :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펴 낸 이 : 전주시

561-7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인쇄제작 : 애드뱅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05-12

(비매품)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차례

향토사학자 작촌 조병희선생 | P. 9

1999년 12월 18일 오후 3시 / 전주시 다가동 작촌 조병희 선생덕

사학자 최근무선생 | P. 45

2000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사무실

고하 최승범선생 | P. 105

2000년 1월 16일 오전 10시 / 고하문예관

우석대 장명수 총장 | P. 129

2000년 1월 9일 오후 3시 / 장명수총장님 자택

전북예총 김남곤회장 | P. 169

2000년 2월 19일 오전 10시 / 전라북도 예총 사무실

언론인 육완태선생 | P. 199

2000년 1월 29일 오전 10시 / 월드컵준비위원회 사무실

부록 | P. 233

1945년이후 전주시 관련 논저목록

없지요. 이정란이는 장하기는 장혀요. 모두가 다 시골로 갈 적에 전주로 가서 지킨다는 게 고맙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글에 나온 정도까지 장한 것은 아녀요. 전주에서 조선후기에 우상, 그게 저 만학대신이지. 그 덕을 많이 봤지. 영의정이 나면 그걸로 그만이며, 삼정승이 나면 그걸로 그만이며. 이백유(李伯由?~1399, 시호 良厚)가 거시기요. 거기를 자세히 알려면 선원(璿源)집이 아니며, 선원집이라는 것은 태조의 피를 받은 집이 선원집이며. 어딘고 허니, 서신동. 서신동에 가면, 사당이 있고, 묘가 많아요. 거기를 한 번 가보쇼. 황강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사기가 써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 남밖 장, 성밖 장

우리 집도 어떻게 되었는데 허니 내 17대조, 어떤 사람이고 허니, 속초를 가면 동명사라고 있어요. 속초에 가면 사당이 하나뿐 이여. 뭘 사당이 있는데 허니, 동명사로 있어요. 그것이 우리 17대조 사당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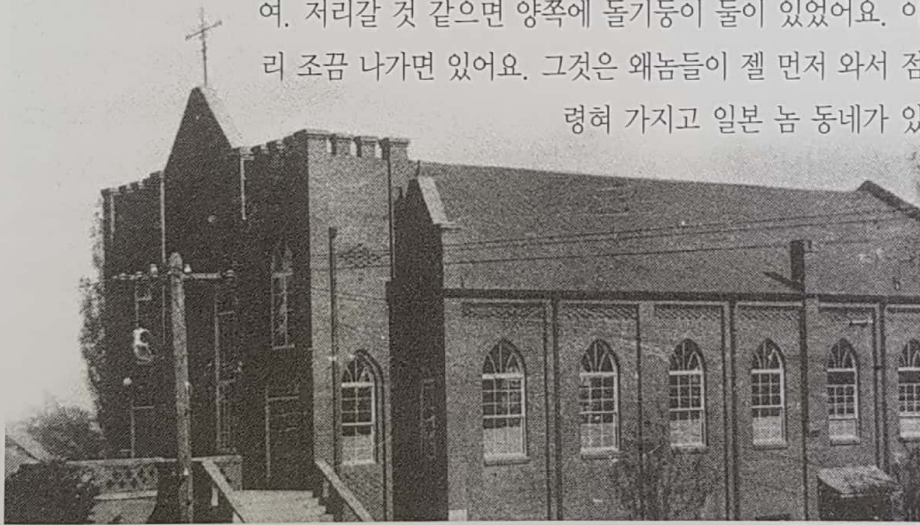
이 동네가 원래, 여기가 성밖이요. 성밖 장(선밖장)이라고 했어요. 사실 일본 놈



1920년대 남문밖 시장모습

이 옹기 생활하는 것이여. 멋지게 사는 것이여. 차내고, 여자가 다 심부름 하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서 가져갔거든. 신라 때 경상도, 쌍계사가 있잖여. 쌍계사에다 당나라에서 갖다가 차나무를 심었거든. 그러서, 일본 놈이 여기서 차를 가져간 것이 신라 때 가져갔어요. 일본 것은 일본 것이 되었는데, 우리 것은 그냥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뒤로도 마찬가지로.

서문교회가 뒀고 허니, 동학, 서문교문이 있었어요. 내건디가 서문이여. 서문으로 동학이 들어왔어요. 뒤에 있는 길은 동학이 들어간 길이여. 저리갈 것 같으면 양쪽에 돌기둥이 둘이 있었어요. 이리 조금 나가면 있어요. 그것은 왜놈들이 켈 먼저 와서 점령혀 가지고 일본 놈 동네가 있



서문교회(1935년)

던 데여. 일본 놈 노는 집이 있어요. 여기가 뒀고 허니 성밖 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있었어. 성밖 장, 남밖 장이라고 했거든. 지금, 남문밖에 있는 것을 남밖 장이라고 그렸어. 내 그러서 쓸 적에도 발음 그대로 썼어요.

남밖 장, 성밖 장, 동학군들이 어떻게 했는고 허니, 용머리 재라고 있잖여요. 용머리 재를 넘고 성당재를 넘어 가지고 서문재여, 지금도 서울고개라고 그래요. 거길 넘어 가지고 어디로 집합했는고 허니 지금, 요 뒤에 가서 성밖 장이 있었어요. 모래바탕이 있었어요. 지금도 집이 몇간디 한 두 개 남아 있어. 그러 가지고

거기에서 모두 장꾼으로 가장했거든. 서문으로 들어갔어요. 역사가 그려요.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길은 뭘 길인고 하니 그 관로(官路)여. 그게 저 덕진서부터 와서 관찰사가 북문으로 부임 안허거든. 여길로 와서, 서문교회로 가는 길있잖여, 거기서 요리 빠져가지고 정문으로 돌아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오거든, 남문으로 들어오지 어떻게 관찰이 북문으로 들어오질 않거든. 남문이 정문이여. 다른 디도 마찬가지로. 남문이 정문이여요, 어디 간들 마찬가지로. 풍남문이 제일 화려해. 신문의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서문도 상당히 컸었는데 풍남문만은 못허고, 나도 4대문은 다 못 봤어요. 왜 못 봤는고 하니, 내가 전주올 적에 다섯살에 왔거든. 나는 낳기는 충청남도에서 낳어. 거기서 커 가지고, 우리아버지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 맡고 첫번째는 순창으로 갔거든. 그랬다가 전주로 오셨거든.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지. 그래서 전주사람이 되었어. 인자, 85년 이상을 여기서 살았으니께 고향에 가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충청도에서 우리가 200년을 살었는데도 그려요.

貸	永	花	第	一	二	大	第	春	一	玉	東	東	
座												樓	【遊
敷			三	葉		二						第	
組	樂	月	觀	坂	乃	川						二	
合			一	支	一							支	
事													【廓
務													表
所	亭	樓	樂	亭	店	樓	樂	家	樂	樓	店	樓	赤
													文
													字
三三五		六五九	三三三	二二二	五二四	五四四	四一三	二二二				四六	
相生町ト2	昭和町チ2	昭和町チ3	相生町ト2	相生町ト2	相生町ト2	相生町ト2	相生町ト2	相生町ト2	相生町ト2	相生町ト2	本町四ト2	相生町ト2	

일제시대 전주유곽

■ 유곽(遊廓)과 권번(券番)

이 근방에는 일제식 건물이 없지요. 일제시대 일본놈 집이 남아있어요 일본놈 조로아라니께, 조로, 술도 파고 땡땡거리고 놀던 디여. 유곽, 그런 것이긴 한데 니마리라고 그려지, 술도 팔고, 기집도 팔고, 거기 조선인 기생은 안갔지요. 거기는 안되었어요. 일제시대 때 유곽은 진북동 쪽에 있고, 거기 가

기 전에는 은석골에 있었어요. 옛날 해성고등학교(현 동국해성아파트) 자리. 그 앞쪽으로, 전매청 있는 자리. 해방되고 없어졌어.

은석골은 서전주거는디, 그 굴 있는디, 거기가 은석골여. 요리갈 것 같으면 서전 주가는 굴이 있잖여. 제 첫째 굴, 다가교 아래께서 굴이 있잖여, 어은골, 그 쪽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리 옮겼지. 남문부근에 권번이라고 허지. 권번, 근디 개들 들 핵교도 가보고 그랬는데, 참 엄격해요. 권번학교가 전주에 있었지요. 엄격해요. 잘못힐 것 같으면, 종아리를 팡팡 때릴 것 같으니, 예전에 우리가 술 먹고 놀 것 같으면, 기생이 와서 절 허고 옷 바로 입히고, 예절만은 철저했어요. 요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철저했어요. 서화도 하고, 서화 잘허는 애들도 여러명 있었어요. 송진주라고, 임식(?)이 작은 마누래. 잘 혀어요. 권번위치가 남문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었는디, 근디, 그 집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디. 권번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 허는 맵기로 여자가 함부로 노는디가 아녀요. 참, 예절은 예절대로 배우는 디예요. 잘못 힐 것 같으면 큰일 나요.

■ 일제시대 전주의 성안과 밖

일본놈 시대, 일본 말엽에 제일 번창한 디가 어딘고 하니. 요 파출소 일대, 여기 도 일본사람이 있어요. 히쿠치(樋口)라는 놈도 있고, 통도(樋渡)라는 놈도 있고, 비단장사도 있었고. 주로 많이 산디가 중앙동, 삼화약국 그 길이지. 뭐, 지금 가 구골목이라고 허든가. 일본 놈이 마쓰리를 가끔 하거든. 뭐 짚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왜싸왜싸' 허는, 전주에서도 했어. 한국 놈들 덩달아 꺾죽거리고 돌아다니고, 왔샤왔샤 허는. 질끈 매고, 정갱이 내놓고 상놈들은 상놈들여. 저기 뭐, 허는 놈이지. 그 놈은 벌거벗고, 있다가 혼났거든.

교동, 거기는 일본 놈 별로 안살었고, 완산동은 들어오기만 허면 뒤져. 일본사람 들이 안살었고. 양반들은 교동하고 풍남동이라고, 여기 다가동은 전주 부지는 전

부 여기 모여 살았었어요. 몇 천석꾼은 부자도 아녀. 나도 거 내 개인으로 얘기 하면 한 칠십석 받았었어요. 그런 것은 존재가치가 없어. 일백석, 칠십석, 몇십석 하는 것은 존재가치도 없을 정도여. 적어도, 삼천석, 몇천석 다 그랬지요. 그리고, 만석꾼이 있질 않았어. 김인철(金仁哲)이가 여기 살았거든. 여그 부자 김인철이지. 지주지. 김도형이 아들이거든, 전주국민학교 교실도 기증하고 그러서, 전주국민학교에 김인철이 즈이 아버지 비석이 세워있어요.

여기가 전주의 부자동네여. 전주가 왜 망했는가 허니, 토착자본이 절단이 났어요. 전주는 뭐, 지주의 고장 아녀. 지주의 고장인디, 토지개혁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몰락하지 않았어요. 전주의 자본이 몰락한 것이여. 일제 때 잘 살았지요. 여기 부자들, 신분으로는 신인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성내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그 전에 성내사람들은 촌에 가서 양반자랑이나 하고, 그냥, 교육도 못했지. 교육이라도 허고, 오늘날 껌죽껌죽 허는 사람들은 성내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조선후기 일제 전에는 중인이나 아전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중인이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여. 성외 사람들은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주둥이나 까고 앉었지, 뭐.

내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전주가 만명 정도였을거여. 성안이 많지, 만명이니까... 그까짓 존재가치나 있겠어. 그때는 이층집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에 남문을 맘대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것 같으면, 노인들이 모다 낮잠도 자고 여름에는 거기 와서 놀고 그랬어요. 이쪽 천변 넘어서는 상것들이 살았다고 그랬지요. 천(川) 넘어서는 살지 말라고.

시장은 별 것 없구, 모래바탕에다 그냥 말뚝만 박아. 장날이면 소 팔고 그랬어요. 전주 1920년대 선밭장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전주시장의 풍경을 그대로 써 놓은 것이여. 1920년경 선밭장이라는 것이 있는게 봐요. 거기 나와요.

■ 경편철도(輕便鐵道)

아, 경편철도! 경편철도는 여간해서 모르지요. 정거장이 어딘가 하니 전주국민학교. 그 뒤에가 전매청이거든. 전매청 본관 있는 그 옆에 끼여. 왜 경편이라고 했는지는... 왜그런고 하니, 전주로 애초에 기차 선로를 전주에 놓았어요. 그러면 숨리

(익산시의 옛 지명)가 만나와요. 고집스럽게 현 결과 숨리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생겼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양반이 사는 고장이 산을 짝고 그러니까 철

全州驛移轉?
元屠獸場附近에

全州驛里間全北鐵道는 지난 달 十月一日부터 國鐵로變更하고 大鐵道直接全州南原間計劃中이라 함은 既報하였거니와 今番에 大田工務所로부터 測量班이 來全하여 實測中인데 지난 九日에 同所에 實查班이 來道하여 諸般調査를 마치고 出發하였다는데 測量線에 依하면 伊東面後劔里로부터 鐵道가 變更하여 伊東面駐在所前으로 藤原製絲株式會社 避病院 中間을 通하여 高等女學校로부터 梧木臺를 經고 南原으로 向한 다면 全州驛은 元屠獸場附近이 第一適當하다 하며 驛敷地는 一萬八千坪을 買受할 計劃이라더라 (全州)

전주역 이전 기사(동아 1927.11.14)

도를 못놓다고 반대운동을 해버렸어. 그런게 전주 놈들이 모두 빌어먹을 놈들이지. 요새, 비행기 문제도 마찬가지여. 내가 김제 놈들한테 그랬어요. 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철도 그래 가지고, 요모양 된 것이랑 뭣이 틀리냐고 정신차려야지. 빌어먹을 놈들이죠. 나도 전주놈인게 욱해도 되야. 전주 놈이 아닌 놈이 욱하면 안되지. 그러 가지고 이리 철도가 못났어요. 그 전에 철도는 어디가 거시긴가 하니, 삼례로 해서 동상으로 해서 덕진으로 바로 통과했거든요. 지금 고속도로 그것이 옛날의 철도길여. 고속도로 부지가 철도부지여 그놈이 고속도로가 되었지. 그러 가지고 차가 되었는지, 그놈의 차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저어 광산에 있는 철도 정도나 되요. 딸까닥딸까닥 혀요. 그것 하나 남겨놓았으면 전주 물건인디.

협궤차하고는 틀려요. 아주 좁아요. 광산철도하고, 기차는 화통이 쑥 나오고, 눈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숨리까지 땡기는 디, 그것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디를 갈 적에 우우하고 갔는디 탈선이 되었어요. 탈선이 되니까, 모두

동네에 가서 막대기를 가져다가 올려 가지고 갔을께, 가히 짐작할 수 있지요. 뭐, 도로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으니까. 철도는 철도여. 뚜껑이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덕진 어디를 지내고 허니, 지금 국악원 요쪽으로 지냈어요, 덕진 거기. 뽐뽐 소리내고 혈 적에는 향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경전북부선(전라선)이 생기면서 없어졌지요. 경전북부선이 언제 생겼는가 보시오. 지금 있는 거기가 경전북부선여, 시청 있는 자리. 천구백칠십몇년(1929년)엔가, 거기 내가 썼어요. 전주 시장에 대해서...

■ 전주장과 약령시

전주장이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장이 없었어요. 거기가 빈터여, 빈터. 그때 대장간하구 용기전하고, 그런 거 한 두 간디 있었거든요. 그러서 한 5일장으로 서 가지고 그때 와서 인제 갈딱치고 그랬거든. 지금 남부시장, 나 어렸을 적에는 전주부여. 그랬어요. 전주부시장, 그게 기여. 남부시장. 그 속에 어채시장이라고 있어요. 동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각가분(박가분, 朴家粉, 한국 최초의 화장품)이라는 게 생각나고 만병수(萬病水)라는 게 생각나고... 만병수가 뭐 누가 만들었다고 허는디, 그거 사기꾼들이지. 그게 부산에선가 만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만병수라고 허니까, 촌놈들이 어디에도 낫는다고 사갔거든요.



약령시종무 박계조 기념비

그리고 화중선(李花中仙)이 노래가 있었고, 화중선이 노래가 유성기라고 있는데, 유성기가 나팔이 유리꽃처럼 되었어. 하얀혀. 통이 또 짝간혀. 그것이 빼각빼각 허는 거여. 그것을 보러 촌양반들이 밥을 싸가지고 와서 보네. 요새는 들으라고 혀도 안 들어, 그런 거. 빼각빼각 그려. 뭐 팔아먹을 라고 그러는 것이지.

약령시(藥令市)는 바로 여기여. 여긴디 모다 잘못 알았습디다. 잘못 안 것이 누가 약령시를 얘기하는 디 저쪽, 우체국 저쪽에 있었다고 얘기허는디 그쪽으로는 없었어요. 약령시가 우체국에서 완산동까지여. 그것을 잘못 전하고 있드만요. 우체국에서 완산교까지가 약령시여. 저쪽으로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약방이 많았어요. 지금도 약방이 많을 거요. 황외과(현 기전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남부시장으로가는 길이 그게 큰길이여. 옛날 관로지. 요쪽으로 가는 길이 관로여.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여. 황외과 뒤로 허서 남부로 빠져가지고, 그게 본로여, 본로(本路). 비선거리로 허서 저 지금 법원 뒤로 빠지지. 길이 지금 남은 디도 있고, 안 남은 디도 있고 그려요. 여기는 조금 남고, 경기전으로 들어가기도 허고, 남은 디가 별로 없어요.

■ 전주아전과 양반

그것은 좀 민중전 거시기 있을 적에 모두 교동 같으면, 학인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백00이 집안들이거든요. 백00 그 집안이여. 그때는 세력이 성내사람인디 세력이 어떻게 강하 든지, 백00이가 군수 모가지를 띠고 붙이고 그렸어요. 수원 백씨들. 조선말에 아전들. 중인이지. 근데 백씨들 사는 동네는 지나갈 때면 양반도 머리를 숙이고 지나갔다고 그려. 세력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아전이, 나는 충청도사람이라 잘 아는디 충청도에는 지금도 아전이 꿈쩍을 못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려요. 지가 뭐 중령을 갔다오고 군대를 갔다와도 꼭 어른을 찾아오고 그럴 줄 알어요. 충청도는 아전이 힘을 못써요. 아직도. 근디 전주에서는 아전세상이지

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착 제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안목, 이런 것이 문제여. 구호 하나 가지고도 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거 어찌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결정하드만, 근데 그거이 잘되었다는 거여. 후에는, 그런 게, 이 관리나, 이런 사람들, 60년대 일본을 갔다와서, 66년 두달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 관광책자 내는 거, 예산낭비고 시장 바뀌면은 또 달라지고, 이렇게 말고, 좀 읽을 수 있게 시장 바뀌어도 상관없이, 계속 돌릴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일본에 가면 교토노다베라든지, 있거든... 그 문학작품도 얹히고, 재미가 있어요. 뒷날 놓고 봐도 있고, 근데 그걸 안해, 가시적인 행정이 너무 많다.

■ 행원과 허산옥씨

내가 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어도 50년대 덕진하고 여기하고만 다니고, 그리고 다방 좋아하고 선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으레 하여튼 글쓰는 사람들, 대학교수들도, 끝나면은 한잔 어울리는 겁니다. 삼천포집도 있고, 이 화집 같은데니... 그때, 박정권 들어서면서 술집출입 못하고 한다고, 막 또 했지요. 그래도 나는 꼭 다녔어. 매일, 보따리 들고, 이거 술한잔 먹는 걸을 나무래느냐, 그거 약주 한되, 먹고, 거 몇푼여.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하다가 좀 어울려가지고, 술한잔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 그거 재민데, 사는 그걸 자꾸 늘르려고 하는 거이 뭐냐.

그렇다고 행원도 같지마는, 행원도 또 가보고 싶어서, 박동화선생하고, 뭉툭뭉툭 원고료나 나오며는 행원 한번 가자, 해서 가면은 허산옥씨가, 그 좋은 여잡니다. 허산옥, 남전, 그 사람도 부각시켜야 돼. 정비석씨가 명기열전 마지막 거를 허산옥씨 쓴다고 그랬거든, 근데 못 썼어. 조선일보에 쓰다가 말았어. 그때, 송기영선생, 정비석선생, 그래 갖고 부안 갔다 오다가 행원에서 술을 한잔 먹었어요. 우리가 박동화선생이랑 가면은 허산옥씨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내가 들

어갈 때, 돈 2만원 요렇게 하면은 오늘 요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이가 돈 관계를 안해.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가 일급 아니야.

국민재건운동 본부장도 오고 지사도 오고, 다 오는데, 안방 쪼그만 한 술상을 줘. 걸어요, 거기 나가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국악을 하고 해도 요쪽으로 빼와, 제간놈들이 뭘 안다고. 판소리를 해도 요쪽으로 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울리는 거야. 흥타령이라고 부안여잔데, 서울로 가갔고, 나중에 서울 을지로에서 했다지 마는 그 여자가 흥타령을 잘해, 그이가, 말하자면, 마담이지, 여기서 노래를 불러.

그 허산옥씨가 내가 어디를 갔다왔을 때, 돌아가셨어. 왔더니, 허산옥씨 죽었다고... 그게 10년도 넘을 거여. 내가 어디 외국 갔다 왔을 때. 그래서 내가 다음해에 소상때 갔지. 가서, 문상을 했는데, 그이가 나한테 잘했냐며는 내가 학장을 하고 교무처장을 할 때, 송방자여사, 작년 재작년엔가 돌아가셨어. 여기도 죽은 줄을 몰라 버렸어. 그 이분하고, 부채 몇 자루를 그려오는 거예요, 허산옥씨가. 나보고 쓰라고, 손님들 많이 오니까, 쓸데 있으면, 쓰라고,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거, 어디 쉽습니까, 멋쟁이지. 꼭 왔어요. 사무실로 오는 거야. 두자루 석자루를, 이분도 가끔 그림을 줘. 자기가 어디 부채를 받아 가지고 수십 자루를 그려는데 최선생 한자루 가지라고, 여기까지도 왔어. 그런 점들이 옛날의 전주입니다. 지금은 아주 없어졌지.

■ 전주의 문화적 특징

예향으로는 지금은 전남에 뒤졌다고 생각을 해. 지방의 특색을 허고 할 때, 예향의 도시다, 예술의 도시다, 그 말은 헐 수가 있습니다. 챙길 수 있어요. 물론 광주도 그렇지만, 그때는 전라도니까, 전라도에도 르네상스시기가 있었어. 몇 번, 가령 문학의 전통만 해도, 전라도, 조선시대를 빼버리면, 참, 국문학사가 흔들림

해방 전에는, 시내버스는 왜정 때는 없었고, 8·15해방 후에도 없었어요. 전북대학 처음 생겼을 때도 시내버스가 없었을 텐데. 정확한, 시내버스가 전주시내에 언제 들어왔는가는 그건 잘 모르겠어. 시내 아니고 군산 전주는 있었지.

■ 전주의 음식

지금, 제일 고급스러운 데가 수구정, 만성장, 혜원, 좀 오래된 것은 요 근래는 새로 생긴 데도 있고, 다가동에 오래되었어요. 한 15년, 한 15년전 20년전에, 제실에서 비빔밥하고 콩나물국밥 유래를 담은 책을 발간한 적이 있을 거야. 전주 제실에서, 그게 실제로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은 오랜 전통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먹었느냐 따지기가 힘들 거예요.

이미 아침 해장국하면은 콩나물 해장국으로, 나 어렸을 때,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면 지금 같으면 500원값이나 되는가, 동전 주면, 가서 그릇에다 담아다가, 우리 어릴 때면, 1939년 9년, 그때 이미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 새삼스럽게 콩나물 국밥을, 비빔밥도 오래 전부터 먹어왔고. 내 추정인데, 우리가 경상도에 가면은,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토지가 협소해서 생산성도 낮지마는 생산되는 종류가 대단히 작아 가지고 반찬해 먹을 만한 반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밭이 많잖아. 그래 가지고 반찬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반찬을 해 가지고 비비니까 맛이 있었겠지, 비빔밥. 경상도는 할래야 한 두 가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라도 비빔밥이 푸짐하게 만들어질 요소가 있었던 거지.

비빔도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흔히, 밥도 고기국물로 만든 것이다, 콩나물도 그냥 삶어내면은 비린내가 나니까, 어떻게 삶어내고, 육회 넣고 어떻게 한다, 그런 맛을 내는 뽕내내는 것이 많았겠죠. 참기름 쳐야 하고, 요즘 비빔밥은 맛이 없고 전통적이 아니라고 허지만은 그 전통이라는 것도, 보통 서민들이, 나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관혼상제 하는 집, 결혼식하는 집에 가

면은 한 통에다 비벼서 떠서 줘요. 그렇게 비벼먹는 거하고, 아까 말한대로 밥을 육수로 짓고 하는 것은 아주 상류층이 먹은 거지. 보통의 반찬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만든 비빔밥이 맛있었다. 그것을 뭘로 만들었고, 찾아야만이 비빔밥이라고. 결혼식 때는 다 가고 식구끼리 남아서, 전부다 비벼먹고, 얼마나 맛있었다고 그게.

확실히는 모르지만, 전주 비빔밥 운운한 것은 60년대 이후일 거예요. 산업사회 도래하고 교통이 좀 발달한 다음에 나온 것이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서 서울을 다녀온다는 것은 대단한 행사의 하나였어. 그런데 누가 여기 와서 비빔밥을 먹어본 사람도 없거니와 비빔밥을 갖다가 먹여준 적도 없잖아. 60년대 이후에 그랬다고 생각되고...

과거에 우리는 선술집이라고 썼거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왕대포집으로 다 바뀌었어. 근데 내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왕대포라는 말은 서울에 있었고, 전주에는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없었어요. 그리고 술잔도 여기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때 술을 잘 안 먹어서 모 르는데, 대포라는 말도 없는 얘기여. 선술집은 삼시간에 없어지고 왕대포집으로 바뀐 거야. 불과 2,3년 사이에, 대충 그 시점이 50년대 중반일 거야.

자연스럽게 서서히 유명해 진 것이고, 처음에는, 메뉴로 비빔밥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콩나물 국밥은 있었어요. 해장 아니고 낮에도. 내가 대학 1,2년때 즐 겨먹던 성심옥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경원동, 원래는 그게 시청 앞에 후생극장이 라고 있었잖아, 깡통극장.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예술회관 있잖아, 그 길이 저만큼 가서 막혀 있었던 말이야. 비포장도로이고, 세상 어수선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이 시청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담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물우물하다가 하꼬방 동네가 삼시간에 열을 서버렸어요. 거기서 콩 나물국밥을 파는데 거기에 성심옥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나중에 철거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게를 하면서 유명해졌거든. 그냥 아닌게 아니라 지금 콩나물국밥 하고 달라.

그때도 콩나물국밥은 팔았는데 비빔밥을 판 기억은 나질 않아. 메뉴로서 오히려 설렁탕 곰탕도 서울에만 있었지. 여기는 없었어요. 여기는 국밥이야. 서울것이 들어와서, 곰탕이 좀 있었고, 주로 국밥이지. 설렁탕이라는 말은 없었어.

원래 기록에 보면 천변에 학교방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 근데 난 그것은 본적이 없고, 서학동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요. 서학동 파출소 다음에 가부속국민학교, 부속국민학교 다음에 가 소시장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시장이 기마재로 변했어. 가는 왼쪽, 공수내다리 가는 왼쪽에 소시장이 있었고, 구이 면에서 나오는 농민들이 그쪽으로 쪽허니 음식점이네 뭐네 잡화상들이 있었지. 거기서 국밥도 팔고 그랬어.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구이면에서 감을 모두 싸 갖고 팔러 나오는데, 거기서 감을 발라 가지고 뜨거운 물에 우려낸다고 그러지. 우려가지고 또 거기서 감 도매를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린 감 도매상.

■ 세시풍속

내가 초등학교를, 내가 여기서 안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4군데나 다녔단 말 이야. 그쪽 기억들은 있지만, 전주 기억은 없어요.

단옷날에 덕진 연못에 모여서 논 것도 사실이고, 오히려 내가 어렸을 때 논 것은 정월 보름날, 이, 전주천에다가 인제 그 나무들 휘어 짜고 걸치고, 대나무로 걸쳐서 그날 밤, 연 걸려구. 마지막 연이니까, 불을 켜 가지고, 그게 대개 동네아이들 그룹으로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래. 더러 돌싸움도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기록에는 서학동 완산동에서 던져서 부상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거든. 글썄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돌 갖고 싸운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 어렸을 적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야.

정월 보름때, 풍장도 치기는 쳤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시화현상 때문에 근거리 사람만 교류가 있었지, 먼 거리는 교류가 없어졌어요. 도시라,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기 수도골목에 아무개집, 옛날에 살던 사람 집만 되지. 이미 모르는 판 사람들은, 그니까, 한꺼번에 동리가 전부 나와서 으샤으샤 놀기에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어.

다가동에는 씨름판이 꾸러지고도 하고, 과거에 호남은 오른씨름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남 고흥으로 씨름이 넘어 갔지. 전북은 씨름이 없어요. 전남북이 다르지. 고흥가서는 힘자랑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씨름꾼은 전부 거기서 나오잖아. 전북사람은 씨름꾼 없어요. 아까 말한 왼씨름인가 그렇게 구분할 때 여기 씨름판에 씨름들 많이 했지. 소싸움, 소 한마리, 지금 말하면 자동차 한대랑 같으니까. 여기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소 걸어놓고 하는 것 봤지. 그때 소씨름으로 유명한 사람이 8·15 해방 후에, 도청운수과장 하던 분인데 지금은 작고했지. 그분이 소 여러 마리 따간 장사로 유명했지? 근데 그 소는, 그걸 잘 모르겠네. 개방되어 있으니까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최측이 있었다고, 소를 걸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소를 걸었고, 8·15 해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소씨름으로 유명한 그 양반이, 아, 잊어버렸네, 우리 친구네 아버진데. 난 전주에서는 자주 본 기억이 없어. 시골밖에.

■ 일본촌과 화교촌, 기독교

서문, 그 일대에 중국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 지금도 화교촌이 있잖아. 그니까, 1907년 일본인이 맨 처음 들어올 적에 다가공원에 두 사람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1910년 천명이라는 일본인이 들어왔을 때, 다가동 일대와 고사동 일대, 지금도 집들이 남아 있잖아.

■ 전통술

전주의 전통술은 그냥 청주지. 청주. 이강주는 특수한 요소를 가지고 어느 특수한 집에서나 해먹던 것을 전통주라고 해서 만들고 한 거지. 일반적으로 누가 그렇게 해먹겠어요. 청주라, 청주. 대중적인 술이에요. 집의 아랫목에 놓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술 때문에 망해서 아래에다 술독 막아놓고, 지금 생각하면 알코올 중독이야. 시간만 되면 딱, 따라 자시지.

결국 그 동아리에다 용수 받아다 먹는 청주술이 대중적인 술이지. 그리고 이강주 먹는 것은 특수한 데서 하던 것을 섹터를 추출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고.

모주는 내 어렸을 적에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때인데 아버지가 출장가실 때에 어머니가 모주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렸고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모주는 가능성 있어요. 연원이 꽤 깊다고 보아야해요. 벌써 그때가 내가 열살, 열살 전 후였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셔서 일찍 돌아가신 양반인데 외할아버지 얘기가 이미 외갓집에서 하던 것을 만들었다고 하거든.

■ 깡통극장

일제 때 극장은 있었지요. 전주극장(현 에프샵), 그거 하나였어. 관통로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통로에 요근래 개축해 가지고 잘 지은 하나 있지요. 그 건물, 뒤쪽으로 가면 골목하나 있어요. 그 골목 중간, 그 건물자리였어요. 그게 흡수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있지. 그때는 그 극장 하나였어. 아까 말한 깡통극장이. 지금 예술회관 북쪽에 있는 코너. 중소기업은행이 옛날 전주시청자리, 그 시청, 동쪽으로 길 건너 옛날 아카데미극장, 그게 두 번째야 근게 그게 인제, 경찰 후생사업 일환으로 경찰에서 만들면서 텐트를 치고, 적당한 판자로 벽을 건, 그러다가 나중에 집 옮기다가 재료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깡통이 많으니까, 깡통을 퍼